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2, pp.1-40
<https://doi.org/10.29212/mh.2024..132.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정전협상 초기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작전적 수준의 분석을 중심으로 -

강지현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검토와 분석의 틀
 3. 정전협상의 시작과 캔자스-와이오밍선
 4. 제2의제(군사분계선) 협상과 유엔군의 하계 공세
 5.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6·25전쟁 정전협상 초기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작전적 수준의 분석을 중심으로 유엔군 사령관이 수행한 군사 작전과 협상 과정을 분석하여 정전협상의 진전을 이뤘던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6·25전쟁 정전협상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전협상의 진행 과정이나 양측이 구사한 협상 전략, 그리고 주요 의제에 관한 분석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정전협상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나 합참, 그리고 주요 관련국과 공산측의 내부 갈등이 협상 과정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유엔군 사령관인 리지웨이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연구는 캔자스-와이오밍선과 하계 공세를 중심으로 리지웨이가 작전적 수준에서 수행한 역할을 분석하였다. 리지웨이는 캔자스-와이오밍선을 정전협상 기간 중 유엔군의 주저항선으로 결정하였고, 하계 공세를 통해 공산군을 압박하여 유엔측 협상 대표단에게 유리한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리지웨이는 정전협상 초기 유엔측 협상 대표단의 주도권 확보 및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리지웨이는 캔자스-와이오밍선을 중심으로 공세 작전을 추진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고, 유엔군의 군사적 우위는 공산측이 기존의 주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여 군사분계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주제어: 6·25전쟁, 정전협상, 유엔군 사령관, 캔자스-와이오밍선, 유엔군의 하계 공세, 교살 작전

(원고투고일 : 2024. 7. 10, 심사수정일 : 2024. 8. 17, 게재확정일 : 2024. 9. 7.)

1. 서론

정전협상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1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정전체제는 외형상 남과 북의 분단과 대립이 주요인이 되고, 관련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그에 맞물려 있는 구조로 보인다.¹⁾ 하지만 정전체제를 논의하던 정전협상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남과 북의 표면적 대립 구조가 아니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었다. 6·25전쟁에서 미국은 전쟁의 확대와 소련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쟁의 목표와 범위를 제한하면서 제한전을 수행했고,²⁾ 전쟁 발발 후 1년 뒤에는 정전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는 1951년 7월 10일 정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제한전의 틀 속에서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결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³⁾ 리지웨이는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6·25전쟁 정전협상 시기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4)의 내용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1) 김보영,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p. 6.
- 2) 6·25전쟁이 가지고 있는 제한전의 모습에 대한 연구로 Robert Endicott Osgood, *Limited War: The Challenge to American Strate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정토웅, “한국전쟁과 미국의 제한전쟁: 군사적 측면,” 『군사』 22호 (1991); 손경호, “제한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6·25전쟁 정책과 전략: 전쟁목표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 제6권 2호 (2021) 등이 있다.
- 3) 미국은 1951년 5월 16일 승인된 NSC-48/5을 통해 38도선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휴전 협정을 체결한 뒤 적당한 시기에 외국군을 철수시키며, 북한의 남침에 대비할

한반도 전역을 담당하는 유엔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워싱턴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이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에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유엔군을 지휘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는 워싱턴의 정치적 지시가 반영된 합동참모본부의 전략지시를 토대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워싱턴 지도부의 지시와 반대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리지웨이는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워싱턴 지도부와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고, 군사분계선 협상 시기까지 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정전협상 시기 유엔군 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전장의 상황과 워싱턴 지도부의 뜻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군사 작전과 협상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쟁 지휘 체계에서 워싱턴 지도부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은 합참을 거쳐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유엔군 사령관은 단순히 합참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 상황과 협상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지시를 미 8군 사령관과 협상 대표단에게 하달했다. 그러므로 유엔군 사령관이 워싱턴과 한반도 사이에서 수행한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정전협상에 대한 연구에서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리지웨이가 협상과 군사 작전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허미스는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에서 협상 시기에 작성된 유엔군의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

수 있도록 한국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고자 하였다. “NSC 48/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로 표기) 1951, Korea and China, vol. VII, part 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pp. 439-442.

워싱턴과 합참,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주고받은 다양한 전문들과 내부 논의 과정을 기록한 문서들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협상 과정과 당시에 이루어진 군사 작전을 시간 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⁴⁾ 허미스는 협상과 군사 작전을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전술적 차원에서 전투 과정을 위주로 설명했다. 그는 협상과 군사 작전을 연계하여 분석하지 않았고 군사 작전의 결과가 협상에 준 영향만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수행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슈나벨과 왓슨은 『미 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하),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III The Korean War part two』에서 합참이 주고받은 전문을 기반으로 협상 과정에서 합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⁵⁾ 슈나벨과 왓슨은 협상 기간에 합참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하달한 지침과 지침을 하달하기 전에 있었던 내부적 논의 과정, 하달된 지침에 대한 유엔군 사령관의 반응과 지침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상을 어떻게 지휘해 나갔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합참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협상으로 인해 취소된 작전 계획이나 유엔군의 공중 폭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정전협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⁶⁾에서도 정전협상

4) Hermes, Walter G,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1966).

5)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The Korean War Part II*(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79).

6) 정전협상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전후 냉전 시기, 탈냉전 시기, 현대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후 냉전 시기 대표적인 연구로는 Matthew B. Ridgway,

시기에 수행된 군사 작전은 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물리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협상의 진행을 방해하는 군사 작전은 취소되었다는 내용만 단순하게 강조하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당시에 수행되었던 군사 작전들이 협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유엔군 사령관이 협상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전협상 초기 유엔군 사령관이 수행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군 사령관이 수행한 군사 작전⁷⁾과 협상 과정을 ‘작전적

The Korean War (New York: Doubleday&Company, INC, 1967),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 탈냉전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 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William Steu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현대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선즈화, 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 (서울: 박영사, 2010),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b),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11권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등이 있다.

- 7) 정전협상 시기에 이루어진 군사 작전은 협상의 체결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지만, 군사적 승리를 추구했던 협상 이전 시기의 군사 작전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협상이 진행되던 시기에 발생한 사상자의 수가 협상 이전에 발생한 사상자의 수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이루어지던 2년 동안 발생한 사상자의 수가 6·25전쟁의 전체 기간 중 발생한 미군 사상자의 45%를 차지했다. Rosemary Foot (1990), p. ix. 6·25전쟁에서 치룬 1129일간의 전투 중 사망한 한국군은 138,418명, 부상자는 450,742명, 전투 중 사망한 미군은 36,574명, 부상자는 92,134명, 실종자는 3,73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군을 제외하고 전투 중 사망한 국제연합군은 영국군 1,106명, 튀르키예군 900명, 캐나다군 516명 등을 포함해서 17개국 4,226명으로 집계된다. 박종상 외 4명, 『6·25전쟁 통계자료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p. 85, 118.

수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당시에 수행된 군사 작전과 협상을 유엔군 사령관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협상에 반영된 워싱턴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리지웨이가 어떻게 협상과 군사 작전을 수행하였는지, 군사 작전의 결과가 리지웨이가 의도한 것을 충족했는지,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전협상 시기 주저항선으로 활용된 캔자스-와이오밍선, 그리고 군사분계선 협상 시기에 이루어진 유엔군의 하계·추계 공세, 유엔 해·공군이 수행한 교살 작전(Operation Strangle)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정전협상 시기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을 분석하며, 유엔군 사령관이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목적을 군사적 상황에 맞게 조율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군사 작전으로 구현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한 1차 사료로는 우선, 미국의 외교 문서인 『미국의 대외 관계,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미 육군, 작전, 전술 지원조직 문서군(RG 338), 미 육군 부관부 문서군(RG 407), 극동군 사령부, 연합국 최고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문서군(RG 554) 등과 이 문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지휘 보고서, Command Report』와 『정기 작전 보고서, Periodic Operational Report』들을 활용한다. 공산측 자료로서 구 소련측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정전에 관한 공산 3국 지도자의 입장을 분석한『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 전쟁의 전말』과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⁸⁾, 그리고 정전협상 시기 북한군의 병력과 전투 경과, 그리고 주요

8) A.V. 토르쿠노프, 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기밀문서』 (서울: 에디터, 2003); 예브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프,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 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부대에 대한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6·25전쟁 보고서』 제2권과 제3권을 활용한다.⁹⁾

본 연구의 범위는 NSC-48/5가 승인된 1951년 5월 16일부터 유엔군의 하계 공세가 종료된 1951년 9월 26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유엔군 사령관은 캔자스-와이오밍선을 정전협상 기간 중 유엔군의 주저항선으로 결정하였고, 이 선을 중심으로 군사 작전을 추진하였다. 또한, 제2의제(군사분계선)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유엔군 사령관은 적극적으로 공세 작전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시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와 분석의 틀

가. 작전적 수준에 대한 분석

작전적 수준이란 전구(Theater)¹⁰⁾나 다른 작전지역 내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역(Campaigns)¹¹⁾과 주요 작전(Major Operations)을 계획·수행·유지하는 수준을 의미한다.¹²⁾

9) 블라디미르 라주바예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 보고서』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0) 전구(theater)란 지역 전투 사령관(geographic combatant commander)이 책임을 할당받은 지리적인(geographical) 공간이다. Department of Army, *FM 1-02.1 Operational Term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19), p. 1-101.

11) 전역(campaign)이란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전략적이고 작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일련의 연계된 주요 작전들이다. Ibid., p. 1-12.

즉,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작전목표(Operational Objectives)를 설정하고, 작전을 전개하며, 작전지속을 위해 자원을 제공하여 전술과 전략을 연계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다.¹³⁾ 6·25 전쟁 시기 미 합참은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극동 지역은 작전 전구로, 한반도는 작전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은 전역계획(Campaign Plan)을 통해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작전목표(Operational Objectives)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고안하며, 전투를 계획하고, 필요한 부대를 할당하고, 군수지원을 통해 부대가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은 세계 또는 전구지역의 전략환경을 이해하고, 국가의 전략목표를 이해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전략지침을 이해하여,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¹⁴⁾ 전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목표를 결정하고, 어떻게 전구의 전장을 운영할 것인가를 계획하여야 하며, 예하 부대에 지침을 하달하여야 한다. 또한, 지휘관은 목표 달성을 위한 작전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며, 전장운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¹⁵⁾

12) Ibid., p. 1-74.

13) 김정익, 「작전적 수준과 작전술」, 『한국군사학논총』 제4집 제1권 (2015), p. 72.

14) 미국은 전 세계를 군사력 사용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구 또는 지역을 구분하여 전략적 및 작전적 수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는 그 국가의 합참 자체가 전구 또는 지역 사령부가 되어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제대가 된다. 즉, 한국의 합참은 미 합참과는 다르게 전략적 결정과 동시에 전쟁수행을 위한 작전적 수준의 결정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김정익 (2015), p. 73.

15) 김정익 (2015), p. 78.

나. 정전협상 시기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

6·25전쟁 시기 미국의 전쟁 지휘 체계에서 리지웨이는 극동 지역이라는 작전 전구를 담당하는 극동군 사령관이자, 한반도라는 작전 전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유엔군의 최고 지휘관이였다. 리지웨이를 현재의 군사 용어로 정의해보면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군 사령관은 한반도에서의 전역계획을 통해 휴전을 통한 전쟁종결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의 ‘작전목표’를 설정하고 정전협상의 과정을 지원했으며, 예하 부대와 협상대표단에게 지침을 하달하고 적절한 부대와 자원을 할당했다. 또한, 유엔군 사령관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전으로 비화된 정전협상에서 자유진영의 이념을 지켜내면서 최대한의 정치·군사적 이익을 얻어야 했고, 국내·외적으로 협상의 조기 체결에 대한 압박과 다수의 사상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과 군사작전을 지휘하였다.¹⁶⁾

미국의 전략목표는 워싱턴 지도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

16) 이와 같이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이 전략제대에서 선정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휘하는 기술을 작전술(operational art)이라고 한다. 작전술 또는 작전구상의 결과 도출되는 것이 작전접근이다. 작전접근은 최종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제시하는 개념으로써, 실제로 부대를 운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Ibid., pp. 81-86. 미 교범에서는 작전술이란 지휘관과 참모가 그들의 기술, 지식, 경험, 창의성, 판단을 바탕으로, 통합된 목표, 방법, 수단에 의해 군사력을 배치하고 조직하기 위한 전략, 전역, 그리고 작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지적 접근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Department of Army (2019). p. 1-74. 작전술과 작전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 육군대학 전략학처 작전술과, 「작전술과 작전적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군사평론』 410호 (2011), pp. 234-276; 김정익 (2015); Department of Army (2019); 합동군사대학교, 『합동 교범 5-0』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022); 장재규, 「한국군의 용병술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군사연구』 제154집 (2022).

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로서, 정전협상 시기 미국의 전략목표는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을 종결짓는 것이었다. 전략지침은 국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된 세부적인 지침으로서, 합참이 정전협상과 관련된 정치적·군사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여 유엔군 사령관에게 하달했다. 리지웨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승인한 NSC-48/5에 제시된 미국의 전쟁목표와 합참이 하달한 전략지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워싱턴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과 유엔군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며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했다.

정전협상 시기 유엔군 사령관은 협상과 관련된 실질적인 군사 문제에 대하여 합참으로 보낼 건의사항을 작성했다. 이와 동시에 유엔군 사령관은 합참으로부터 하달받은 전략지침을 기반으로 협상 대표단에게 협상에 관한 지시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와 같이 합참은 워싱턴 지도부와 유엔군 사령관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유엔군 사령관이 협상을 지휘하고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951년 5월 31일 합참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하달한 지침의 핵심은 NSC-48/5에 명시된 전쟁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의 전쟁을 종결짓는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적어도 38도선 이남에 대하여 한국의 통치권을 확립하고,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하여 스스로 방위할 수 있게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합참은 이 지시에서 NSC-48/5에 제시된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군사 작전과 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하였다.¹⁷⁾

17) "Msg, JCS 92831, JCS to CINCFE(Commander in Chief, Far East)," 31 May, 1951, *FRUS 1951: Korea and China*, vol. VII, part 1, pp. 489-492.

다. 분석의 틀

〈표 1〉 분석의 틀

수단		방법		목표
캔자스-와이오밍선 강화	⇒	공산측의 공격 억제 ----- 정치적 우위를 확보		유엔측 협상 대표단의 주도권 확보 및 유지
공세 작전	⇒	군사적 우위 확보 ----- 공산측의 대규모 공격 작전을 저지	⇒	
협상 장소 변경을 시도	⇒	개성에서의 불리함을 제거		

리지웨이는 하달된 전략지시들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한 전쟁 종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군사 작전과 협상을 동시에 지휘해야 했다. NSC-48/5가 하달된 이후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군사 작전의 목적이 변한 것이었다. 군사 작전의 최종적인 목표가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입혀서 전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로 바뀐 것이다. 새롭게 하달된 전략지시의 핵심은 이전까지 수행해오던 전쟁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리지웨이는 새로운 전략지시에 부합하는 전쟁 수행 방식을 고민했다.

고민의 결과, 리지웨이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작전적 수준에서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인 ‘유엔측 협상 대표단의 주도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캔자스-와이오밍선’과 ‘공세 작전’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공산측의 공격을 억제’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는 캔자스-와이오밍선의 강력한 방어력을 기반으로 하여 제한된 형태의 공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협상 장소를 개성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것은 리지웨이가 부여받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했다. 왜냐하면, 협상이 처음 시작된 개성은 공산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측 협상 대표단에게 불리했기 때문이다. 협상 초기 공산측은 의도적으로 회담장 주변에 무장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유엔측 협상 대표단의 원활한 협상 진행을 방해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따라서 리지웨이는 개성이 협상에 주는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협상이 중단되었을 때 협상 장소의 변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양측 협상 대표단은 리지웨이의 주장대로 판문점에서 협상을 재개하였고, 유엔측 협상 대표단은 협상장에서 공산측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고 협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3. 정전협상의 시작과 캔자스-와이오밍선

가. 정전협상 초기 군사적 상황

리지웨이는 정전협상이 시작될 때, 무엇보다도 협상으로 인해서 유엔군의 군사 행위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했다. 그는 공산군이 협상 기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격 능력을 축적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공산군의 군사력 증강은 유엔군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공산군의 물자나 병력을 수송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차량 이동이 6월 말에 비해서 7월 초에 약 70%나 증가했으며, 이 차량 이동의 대부분이 39도선 이남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공산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심문에서도 1951년 7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공산군의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¹⁸⁾

특히, 리지웨이는 공산측이 정전협상을 실제로 진행하려는 의지와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일례로 북한군 제8사단이 7월 초에 예성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정찰과 포로 심문을 통해서 식별되었다.¹⁹⁾ 예성강은 개성에서 북쪽으로 약 70km 지점에 위치한 강이었다. 즉, 공산군이 정전협상의 시작에 맞추어 대규모 병력을 개성 일대로 집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기보다는 차후 공격을 준비하고 군사력으로 유엔측을 압박하려는 것을 의미했다.

공산군은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7월 20일에 유엔군 진지 전방 1~5km 지점에 전초저항선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과는 달라진 공산군의 전술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는 개성에서 정전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이 소득 없이 결렬될 경우, 사전에 공격 징후를 식별하기도 전에 강력한 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 외에도 협상으로 인해서 전장 상황이 고착되자 공산측도 방어 진지의 중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초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²⁰⁾

실제로 미 제10군단은 캔자스선 북방 5km 지점에서 공산군의

18) "Msg, CX 66188, CINCFE to JCS," 2 Jul, 1951, *FRUS 1951: Korea and China*, vol. VII, part 1, pp. 610-611.

19) "Msg, HNC 078, CINUNC to JCS," 13 Jul, 1951, *FRUS 1951: Korea and China*, vol. VII, part 1, p. 674.

20) *Ibid.*, p. 67.

철조망과 지뢰 지대에 봉착하기도 했다. 장애물과 연계된 지뢰 지대는 펀치볼 남동쪽 가장자리 부근이었는데, 이곳은 공산군의 자동화기, 박격포, 그리고 포병화력에 의해 엄호되고 있었다.²¹⁾ 즉, 언제라도 공산측은 유엔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유엔군 진지와 근접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병력과 장애물이 통합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것이다.

실제로 공산측은 정전협상을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951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중공군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중공군이 참전한 8개월 동안의 작전을 결산한 결과, 유엔군의 사단급 부대를 섬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확대회의에서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유엔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유엔군을 약화시켜서 시간을 번 뒤에 중공군의 준비를 가속화하여 전장 상황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중공군은 ‘지구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회담을 통한 전쟁의 종결’이라는 지도 방침을 확정하였다.²²⁾ 공산측은 새로운 지도방침에 따라 회담이 지연되는 것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나. 유엔군 사령관과 캔자스-와이오밍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산측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캔자스-와이오밍선은 리지웨이가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고, 유엔측 대표단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어선이었다. 따

21) Ibid., pp. 69-70.

2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33.

라서 리지웨이는 정전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1951년 6월 20일 합참에 제출한 ‘정전기간 중 유엔군 부대가 위치할 방어선에 관한 판단서’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저항선으로 캔자스-와이오밍선을 선택하였다.²³⁾

리지웨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캔자스-와이오밍선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1951년 7월 14일 리지웨이는 합참에 보고한 “향후 60일 동안 한국에서 예상되는 사태발전에 대한 개념”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유엔군이 캔자스-와이오밍선에 도착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현재 공산군의 병참선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고, 유엔군의 공중폭격, 심한 강우 미 홍수가 적의 군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상황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그는 유엔군이 앞으로 2개월 동안 캔자스-와이오밍선을 넘어 총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방어선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리지웨이는 제8군을 캔자스-와이오밍선에 배치하여 제한적인 공세를 통해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가하고자 하였다.²⁴⁾

리지웨이가 유엔군의 주저항선으로 결정한 캔자스-와이오밍선은 다양한 장점을 제공해주었다. 첫째, 캔자스-와이오밍선은 유엔군이 정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유엔군이 공격적인 군사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왜냐하면, 캔자스선은 방어에 유리한 주요 지형지물을 이은 선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캔자스선은 적의 이동을 사전에 관측하고 화력을 유도하기에 용이한 높은 고지, 병력이나 보급품을 실은 차량이나 전차가 이동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견부, 그리고 하천이나 강과

23) Schnabel and Watson (1979), p. 8.

24) Ibid., p. 8.

같은 자연 장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강안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캔자스선이 갖는 방어적 이점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우선 서부전선의 임진강 남쪽 제방선은 도하를 시도하는 공산군을 상대하기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군은 도하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도하작전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서부 전선의 주요 고지들은 공산군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주요 도로를 통제하기에 유리하였다.

중동부전선의 화천저수지-양구 구간은 춘천과 홍천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를 통제하기에 용이하였다. 그 중에도 화천저수지에 있는 화천댐은 유엔군의 방어 작전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왜냐하면 화천댐의 수위가 최고일 때 수문을 동시에 개방하면 북한강의 수위가 3~4m 정도 상승하여 캔자스선 주변 지역이 범람하고 춘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범람은 일시적이지만 유엔군의 횡적 이동과 미 제9군단의 가평-춘천-화천 도로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²⁵⁾ 동부전선의 봉화봉-양양 구간은 영동과 영서 지역을 횡으로 잇는 주요 도로와 인제 남쪽과 양양 남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를 통제하기에 용이했다.

와이오밍선은 철의 삼각지대를 관측하고, 전방에 화력을 집중하기에 용이한 주요 지형지물을 이은 선이라는 점에서 방자에게 유리한 이점을 제공해주었다. 와이오밍선이 대성산에서 북동쪽 전방에 있는 고지로 이어지지 않고 남동쪽의 화천저수지로 이어지는 이유는 화천저수지 전방에는 종적으로 발달한 도로가 없고 산악지형이 험준했기 때문이다. 공산군의 입장에서 화천저수지 전방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극복하여 대규모 병력을 남하시키기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 382.

는 것은 비효율적이었고, 유엔군도 험준한 산악지형에 효율적으로 방어 병력을 배치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대성산에서 화천 저수지로 이어지는 와이오밍선은 아군에게 유리한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적절한 방어선이었고, 방어에 중심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캔자스선의 전초선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였다.

둘째, 캔자스선은 유엔군이 공격과 방어 작전을 수행하기 가장 적절한 방어선이었다. 유엔군이 1951년 5월 반격 작전을 통해 38도선을 회복한 뒤 미 제8군은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어디까지 진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토의의 중점은 미 제8군이 판단하고 있는 각각의 진출선이 차후 작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였다.²⁶⁾

각각의 진출선이 갖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캔자스선이 가장 적절한 방어선으로 판단되었다. 왜냐하면, 유엔군이 북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았고, 유엔군의 군사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제8군에게 가장 유리한 진출선은 38도선 북쪽에 아군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까지만 진출하여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병력 배치는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제한된 공격 작전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위협을 최소화하여 미 제8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줄 것으로 판단되었다.²⁷⁾ 즉, 캔자스선은 공산군의 항공 화력을 포함한 각종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해주고, 공산군의 보급선을 신장시켜서 공산군의 원활한 공격을 방해하는데 기여하고, 아군의 적극적인 정찰과 공세 활동의 여건을 보장해주는 선이었다.

셋째, 캔자스선은 협상과 선전, 그리고 한국군과의 관계에서

26) EUSAK, *Command Report, Jun 1951, Section 1: Narrative*, RG 338, NARA, p. 7.

27) *Ibid.*, p. 8.

이점을 제공해주었다. 우선, 캔자스선은 정전협상에서 군사분계선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선이었다. 1951년 7월 초 유엔군은 서부전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선에서 38도선보다 북쪽으로 진출한 상황이었고, 캔자스선은 또한 서부 전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38도선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유엔측은 군사분계선을 협상 조인 시점의 접촉선으로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공산측과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유엔측은 어느 정도 양보하여 캔자스선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캔자스선은 중요하였다.

넷째, 유엔군이 캔자스선을 지키는 것은 공산측의 선전을 방지하고, 유엔군의 정치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했다. 미 국무부는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이 캔자스선에서 후퇴하여 38도선으로 물러난다면 공산측은 유엔군을 상대로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도 공산측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군이 캔자스선에서 후퇴하는 것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유엔측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명확했기 때문이다.²⁸⁾

결과적으로 리지웨이는 NSC-48/5에서 제시한 바대로 군사적 현실에 맞게 정치적 수단으로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첫 시작으로 캔자스-와이오밍선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지키고자 했다. 미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군은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 공산군에게 적절한 군사적 압

28) Department of state, "Kansas Line Versus 38th Parallel," 3 Aug 1951, RG 59, Entry A1 1251, Box 35: Korea Project Files, 1950 - ca. 1978, NARA, pp. 9-10.

박을 가하여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캔자스-와이오밍선의 강력한 방어력은 유엔군이 의도한 바대로 공산군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었고,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 소결론

〈표 2〉 캔자스-와이오밍선에 대한 작전적 수준의 분석

캔자스-와이오밍선	작전적 수준에서 갖는 의미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의 여부
방자에게 유리한 지형적 이점을 제공	⇒ 공산측의 공격 억제에 기여 ⇒ 유엔군의 공세 작전 여건 조성	⇒ 유엔측 협상 대표단의 주도권 확보 및 유지에 기여
공산군의 항공 화력으로부터 아군을 보호 ⇒ 공산군의 보급선 신장 강요	⇒ 유엔군의 공세 작전 여건 조성	
38도선 북쪽에 위치	⇒ 정치적 측면에서 우위를 제공	

리지웨이는 캔자스-와이오밍선을 유엔군의 주저항선으로 결정함으로써, 작전적 수준에서 그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다. 정전협상이 논의되던 시기 리지웨이는 미 제8군에 대하여 공산군을 압록강까지 밀어낼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미 제8군 사령관 밴플리트는 1951년 7월 5일 평양-원산선까지 진출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는 공격적인 계획인 오버웰밍 계획(Plan Overwhelming)을 리지웨이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²⁹⁾ 하지만, 당시 미국의 국가 정책이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낸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았고, 북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공격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리한 북진 작전은 자제하였다.³⁰⁾ 즉, 리지웨이는 군사·정치적 측면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캔자스-와이오밍선을 주 저항선으로 결정하였고,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중공군의 5차 공세 이후 1951년 6월 중순 유엔군이 캔자스-와이오밍선을 점령한 상황에서 리지웨이가 철의 삼각지에서 중요한 도시인 평강 점령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는, 정치적인 의미를 좀 더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당시 리지웨이는 정전협상의 여건 조성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북진은 승인하지 않았고, 이는 북진 작전을 감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상자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지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철의 삼각지 일대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한의 위협으로 충분한 군사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1951년 6월 13일 미 제10군단이 전차와 보병으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철의 삼각지 북쪽 꼭지점에 위치한 도시인 평강을 정찰한 결과, 시내는 텅 비어 있었고 중공군의 주력이 북쪽 능선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³¹⁾ 정전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유엔군이

29) EUSAK, "OpPlan Overwhelming" 5 Jul 1951, RG 554, Entry NM-4 74, Box 12: General Files, 1953-1953, NARA.

30) Matthew B. Ridgway, "My Battles in War and Peace, the Korean War," *Saturday Evening Post* (Feb 25, 1956), p. 130.

31)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Washington, D.C.: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0), pp. 493-494.

평강을 확보하여 철의 삼각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면, 이는 협상이 진행될 때 유엔군에게 확실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4. 제2의제(군사분계선) 협상과 유엔군의 하계 공세

가. 포복 작전과 피의 능선 전투

군사분계선 협상 초기 리지웨이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강력한 공세 작전을 결심했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을 어디에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충돌하면서 협상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자, 유엔측 협상 대표단 일각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엔측 수석 대표인 조이도 공산측이 유엔측 안을 조속히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압력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밴플리트도 유엔군의 공세 작전과 최후 통첩을 통해 공산군을 압박하자는 조이의 의견에 동의하였다.³²⁾ 리지웨이도 조이와 밴플리트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공세 작전을 통해 공산측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군사분계선 협상 시기 리지웨이의 공세 작전은 포복 작전(Operation Creeper)과 피의 능선 전투로 시작됐다. 포복 작전과 피의 능선 전투는 1951년 8월 18일에 동시에 시작하여 각각

32) 양대현, 『역사의 증언』 (서울: 형설출판사, 1993), pp. 124-125.

8월 27일과 9월 5일에 종료되었다. 8월 18일 포복 작전과 피의 능선 전투가 개시되었을 때 협상장에서는 유엔측과 공산측이 군사분계선을 정하는 문제로 인해 여전히 심각한 의견 대립을 겪고 있었다.

리지웨이가 공세 작전의 시작을 피의 능선 일대로 결정한 이유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워싱턴 지도부의 지시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유엔군이 피의 능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될 경우, 유엔군은 캔자스선을 포기하고 캔자스선 이남으로 철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지웨이는 피의 능선을 확보하여 공산군과의 접촉선을 캔자스선 북쪽 4km 지점까지 끌어올리고, 비무장지대가 캔자스선 북쪽 2km 지역부터 설정되도록 하여 캔자스선의 방어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라는 워싱턴 지도부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했다.

리지웨이는 피의 능선 전투가 진행되던 시기에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성에서의 협상을 중단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확신했고, 계속해서 워싱턴 지도부에 협상 장소의 변경을 건의했다. 왜냐하면, 개성에서 공산측에 의한 중립 지대 위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유엔측 대표단의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8월 22일 공산측은 야간에 개성 회담장에서 유엔군의 항공기에 의해 폭격과 기총사격을 당했다는 이유로 유엔측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즉각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유엔측이 폭격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는 공산측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³³⁾ 하지만 8월 23일 공산측은 이 사건을 유엔측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였고, 공산측에 의해 중단된 협상은 피의 능선 전투가 종료된 9월 5일

33) "Msg, HNC-258, The Senior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e in Korea(Joy) to CINUNC," 23 Aug, 1951, *FRUS 1951: Korea and China*, vol. VII, part 1, pp. 848-850.

까지 재개되지 못했다.³⁴⁾

리지웨이는 9월 2일과 3일에 반복해서 개성에서의 협상을 거절하고 새로운 협상 장소를 제안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그는 개성의 중립화로 인해 유엔군의 군사 작전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는 공산측에게 군사적 이점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개성에서의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았다.³⁵⁾ 리지웨이의 적극적인 건의에도 워싱턴 지도부는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리지웨이의 반복된 건의는 워싱턴 지도부로 하여금 개성에서 협상을 계속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워싱턴 지도부는 정치적인 측면, 즉 회담 결렬의 책임 문제만을 중요하게 고려했지만, 리지웨이는 정치적인 측면과 함께 군사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성에서의 협상 중단을 주장했다. 특히, 리지웨이가 개성에서는 더 이상 유엔군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은, 인명을 중시하는 워싱턴 지도부가 협상 대표단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을 벗어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

피의 능선 전투는 1951년 8월 18일에 시작되었고, 9월 5일에

34) 리지웨이는 이러한 사건을 공산측이 협상을 지연시켜서 군사력을 회복하고, 협상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았다. "Msg, CX-69566, CINCFE to JCS," 24 Aug, 1951, *FRUS 1951: Korea and China*, vol. VII, part 1, pp. 851-854.

35) 9월 2일 리지웨이는 반복되는 중립 지대 위반 사건으로 인해 유엔측 대표단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이유로 개성에서의 협상을 중지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워싱턴 지도부는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이 유엔측에게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Schnabel and Watson (1979), p. 20; 9월 3일 리지웨이는 다시 한번 더 협상 장소의 변경을 워싱턴 지도부에 건의하였다. 그는 지금처럼 공산측이 협력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개성에서의 협상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유엔측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Msg, C-50115, CINCFE to JCS," 3 Sep, 1951, *FRUS 1951: Korea and China*, vol. VII, part 1, pp. 875-877.

미 제2사단이 983고지 쪽의 855고지를 점령하면서 유엔군이 피의 능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3주간의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은 사상자 2,700명이 발생했고, 공산군은 1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⁶⁾

리지웨이는 포복 작전과 피의 능선 전투를 통해 공산측이 군사분계선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포기하도록 군사적으로 압박하는데 성공했다. 8월 17일 마오쩌둥은 협상의 진전을 위하여 김일성과 중국 협상 대표단에게 기존의 38도선 주장을 포기하라고 지시하기는 했지만, 그 대신 공산측이 제안하려고 판단했던 것은 임진강을 기초로 한 군사분계선이었다. 이는 유엔측이 제시했던 현 전선을 기초로 한 군사분계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8월 18일 유엔측은 공산측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같은 날 유엔군의 하계 공세가 개시되자, 8월 22일 공산측 협상 대표단은 경제적·군사적 손익을 비교한 후 유엔측의 제안 대로 현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방안을 마오쩌둥과 김일성에 제안하고 동의를 받았다.³⁷⁾ 공산측 지도부는 군사분계선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결정하였지만, 8월 말 개성 중립지대에서 사건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면서 공산측의 입장 변화는 협상에 반영되지 못했다.

리지웨이는 피의 능선을 확보하여 새로운 협상 장소를 제안하는 것에 대한 워싱턴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냈다.³⁸⁾ 이는 워싱턴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 리지웨이가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때 리지웨이가 받아낸 워싱턴 지도부의 승인은 판문점으로 협상 장소를 옮기기 위한 과정의 첫 시작점이 되었다. 유엔군이 피의 능선을 확보한 것은 공산군에 대한 유엔군의 군

36) Hermes (1966), p. 86.

37) 김동길, 「휴전협상에서 북중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3호 (2019), p. 46.

38) 김보영 (2016), p. 116.

사적 우위가 앞으로 더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시 워싱턴 지도부 내에서는 개성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개성의 중립성과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유엔군이 성공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워싱턴 지도부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워싱턴 지도부는 유엔측이 협상 장소의 변경을 제안하더라도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기존의 판단을 수정하였고, 리지웨이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유엔군은 피의 능선을 확보하여 미 제10군단이 담당하는 캔자스선의 방어를 강화할 수 있었다. 유엔군은 황격실의 피의 능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방어 진지 편성이 가능해졌고, 기존에 피의 능선에서 아군을 관측하고 화력을 유도했던 공산군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또한, 유엔군은 캔자스선의 안전을 강화하여 미 제10군단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피의 능선 북쪽에 있는 단장의 능선을 점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단장의 능선은 공산군의 주보급로인 문동리 계곡과 사태리 계곡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유엔군이 대우산, 낚시 바늘 능선, 그리고 피의 능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치불 일대의 공산군에게 큰 손실을 입혔고, 이는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 준비를 저지하였다. 공산군이 대우산과 편치불 일대에서 제6차 전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군이 하계 공세를 통해 대우산을 점령했다. 공산군은 대우산을 되찾기 위한 공방전을 8월 말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였지만, 8월 말의 공산군은 포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큰 비까지 내려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우산을 되찾기 위한 공격을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었다. 결국, 8월 31일 평터화 이는 인민군 전선사령부 김웅에게 전문을 보내 “탈환하기 쉽지

않은 진지는 잠시 동안 무리해서 탈환하려 하지 말고 병력의 피해를 줄이라”고 지적하였다.³⁹⁾ 그에 따라 김웅은 대우산을 되찾기 위한 전투에서 누적된 많은 병력 손실로 인해 대우산에 대한 반격을 포기하였다.

리지웨이는 공세 작전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공산측 협상 대표단의 태도는 협상 초기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공산측은 8월 23일 유엔측이 중립 지대 위반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8월 말 모택동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서 “적이 파렴치한 선동행위를 시도한 것은 이 같은 사태 때문에 우리측이 교섭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적은 우리를 압박하려고 이런 방책을 이용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모택동은 “우리는 적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교섭의 일시중지를 선언했다. … 이는 적의 기세를 한풀 꺾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섭 중지 통고만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⁴⁰⁾ 즉, 공산측이 휴회를 선언한 것은 유엔측이 자신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알고, 공산측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유엔군의 기세를 꺾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리지웨이는 피의 능선 전투가 종료된 9월 5일에도 공산측으로부터 어떠한 양보도 받아내지 못했다.

나. 제1차 단장의 능선 전투

단장의 능선⁴¹⁾ 전투는 크게 제1, 2차 전투로 구분할 수 있다.

3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2005), p. 150.

40)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소련군 참모본부 제2총국 제23256호 암호전보(1951년 8월 27일자), A.V. 토르쿠노프 (2003), p. 352.

제1차 전투는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전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931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894고지까지만 확보한 채로 중단되었다. 제2차 전투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의 전투로, 10월 2일 미 제2사단에서 하달한 터치다운 작전에 따라서 공격을 재개하여 목표를 탈취하였다.

리지웨이는 피의 능선 전투에서 입은 막대한 피해로 인해 불리해진 공산군을 쉬지 않고 압박하여 유엔군의 군사적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에 대한 공세를 결심하였다. 유엔군의 군사적 우위가 강화될수록 유엔측 협상 대표단은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협상을 주도해나갈 수 있었고, 이는 협상에서 워싱턴 지도부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공세 작전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공산군의 사상자 수는 공산측 협상 대표단이 협상의 체결을 서두르도록 압박하여, 그들이 협상에서 조급한 태도를 보이게 만들 수 있었다.

단장의 능선은 비무장지대의 폭과 캔자스선의 안전 확보를 고려했을 때, 피의 능선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또한, 유엔군이 단장의 능선을 점령하게 되면 공산군들이 “금광 지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급 기지인 문동리와 사태리 일대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단장의 능선 좌우측에 남북으로 발달한 후보급로를 확보하여 차후 작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⁴²⁾ 단장의 능선은 피의 능선과 더불어 캔자스선에 대한 공산측의 관측을 저지하여 캔자스선 일대의 안

41) 단장의 능선은 주능선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으며 동서로 많은 소능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단장의 능선은 남에서부터 894고지-931고지-851고지-961고지 등 4개의 주요 고지가 주 능선상에 있었다.

42) Second Infantry Division, *Command Report, Sep 1951, Section 1: Narrative*, RG 407, Entry NM3 429, Box 2604; Second Infantry Division, NARA, p. 22.

전을 보장하고, 미 제10군단의 전선을 미 제9군단의 전선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었다. 이는 전선에 실제로 배치되어야 하는 병력수를 감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에게 더욱 중요했다.⁴³⁾

리지웨이의 의도에 따라, 9월 6일 밴플리트는 미 제10군단장에게 “현재 적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바로 적을 추격해서 공격하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요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밴플리트는 미 제2사단과 해병여단이 빠른 시일 내에 공격을 진행해야 주요 고지를 점령하는 데에 유리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이와 동시에 그는 공산군에 대한 압박이 절대 완화되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⁴⁴⁾ 9월 8일 밴플리트는 미 제10군단에 피의 능선 북쪽에 있는 능선과 편치볼 북쪽의 능선들을 점령하라고 지시하였다.⁴⁵⁾

단장의 능선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던 9월 24일 회담 재개 조건을 토의하기 위한 연락장교회의가 시작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공산측은 정전협상 재개와 그 일시만을 토의하자고 주장했고, 유엔측은 협상 장소의 변경을 협상 재개 조건으로 강하게 내세웠다.⁴⁶⁾ 양측은 협상장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9월 26일 유엔군이 최초 작전 목표인 931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1차 단장의 능선 전투가 종료되었다.

43)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Heartbreak Ridge, Sept.-Oct., 1951, 2nd Division*, RG 218, Entry UD 101, Korean Conflict: A Collection of Historical Manuscripts on the Korean Campaign, (Washington, D.C.:Library of Congress), p. 132.

44) EUSAK, *Command Report, Sep 1951, Section 1: Narrative*, RG 338, Entry A1 1, Box 64: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1959-1973, NARA, p. 38.

45) *Ibid.*, pp. 38-39.

46) 김보영 (2016), p. 76.

리지웨이는 제1차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작전 목표인 931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서 단장의 능선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제1차 단장의 능선 전투는 리지웨이가 의도했던 것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유엔군의 하계 공세는 종료되었다. 밴플리트는 유엔군의 하계 공세에 대하여 제한된 목표에 대한 공격을 통해 주요 고지들을 획득한 것은 공산군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는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는 고지를 쟁탈하기 위한 전투에서 발생한 유엔군 사상자들의 희생으로 인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제한된 공격과 정찰을 통해 공산군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공산군이 유엔군 전선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화를 위한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더라도 “엄중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적을 찾고 파괴함으로써 적을 궁지로 모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하계 공세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 지었다.⁴⁷⁾

리지웨이는 밴플리트의 평가대로 하계 공세를 통해 공산군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는데에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군사 분계선 협상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하계 공세를 통해 확보한 군사적 우위는 차후 협상에서 유엔측 협상 대표단이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47) EUSAK, *Command Report, Section I: Narrative, Oct 1951*, RG 338, Entry A1 1, Box 64: Command Report, NARA, pp. 30-31.

다. 소결론

〈표 3〉 공세 작전에 대한 작전적 수준의 분석

공세 작전	작전적 수준에서 갖는 의미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포복 작전과 피의 능선 전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여 공산측이 군사분계선에 대한 기존 주장을 포기하도록 압박	유엔측 협상 대표단의 주도권 확보 및 유지에 기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여 협상 장소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워싱턴 지도부를 설득하는데 기여	
	캔자스선의 방어를 강화	
제1차 단장의 능선 전투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 준비를 저지	
	유엔군의 추가적인 공세 작전 여건 조성	

리지웨이는 하계 공세를 통해 공산측을 군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작전적 수준에서 그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했다. 특히, 그는 캔자스선의 방어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라는 워싱턴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과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 준비를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공세의 시작을 편치볼 일대로 결정하였다. 리지웨이는 하계 공세를 통해 군사분계선에 대한 공산측의 내부적인 입장과 협상 장소 변경 제안에 대한 워싱턴 지도부의 입장을 바꾸는데에 성공했지만, 군사분계선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추가적인 공세 작전을 통해 공산측을 압박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는 10월 5일 제2차 단장의 능선 전투

로 시작되는 유엔군의 추계 공세로 이어졌다.

리지웨이는 하계 공세와 더불어 공중에서도 유엔 공군의 교살 작전(Operation Strangle)⁴⁸⁾을 통해 공산측을 압박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상에서 대규모 공세를 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평양이라는 전략 목표를 타격하고, 공산군의 보급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철도를 주요 표적으로 삼는 등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리지웨이는 하계 공세 이전부터 평양과 나진에 대한 공중 폭격을 통해 공산측의 군사력 증강 시도를 저지하며 공산군의 전쟁 수행 의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고,⁴⁹⁾ 하계 공세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교살 작전을 추진하였다. 하계 공세 시기에 이루어진 교살 작전의 결과로 9월 중순 신의주-신안주 구간의 간선 철도는 70%가 단선 철도로, 신의주-평양 구간의 간선 철도는 90%가 단선으로, 평양-사리원 구간의 간선 철도는 40%가 단선으로 축소되었다. 공산군측은 단선 철로라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동-사리원 간의 188km 복선 철도를 단선만을 남긴 채 철거하는 등⁵⁰⁾ 교통 체계가 거의 마비되는 수준까지 악화되었다.

유엔 공군의 교살 작전으로 인해 공산군은 실제로 보급품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산군의 제6차 전역

48) 교살 작전(Operation Strangle)이란 유엔 공군이 전선으로 연결되는 북한 지역의 모든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수행한 항공차단작전이다. 정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공산군은 이를 이용하여 급속도로 보급품과 장비를 전선으로 추진하였고,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공산군의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살 작전이 수행되었다. 이 작전은 미 제5공군이 극동해군,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로버트 F. 퍼트렐, 강승기 역, 『6·25전쟁 미 공군 항공전사』(계룡: 공군본부, 2021), p. 379.

49) 로버트 F. 퍼트렐 (2021), pp. 509-510.

50) Ibid., p. 519.

준비는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1951년 9월 초 공산군 전선부대는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지게 되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솜옷을 보급받지 못했다. 실제로 9월 7일 평터화이는 네룽전에게 보낸 전문에서 “아침저녁으로 가을바람이 차가운데 병사들은 홑겹의 옷만 입고 있어 최근 환자가 크게 늘고, 홍수와 적군 항공기의 폭격으로 교량이 끊기고 도로가 붕괴됐으며 물자도 거의 바닥났고 식량도 부족하다. …”고 말하면서, 전선 부대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기록에서는 공산군의 제6차 전역이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급 수송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⁵¹⁾

5. 결론

본 논문은 정전협상 초기 유엔군 사령관이 수행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의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엔군이 수행한 군사 작전과 협상 과정을 작전적 수준에서 재구성하여, 유엔군 사령관이 워싱턴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협상과 군사 작전을 수행하였는지, 군사 작전의 결과가 유엔군 사령관이 의도한 것을 충족하였는지,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리지웨이는 정전협상 초기 유엔측 협상 대표단의 주도권 확보 및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리지웨이는 군사분계선 협상 시기 하계 공세와 교살 작전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여 워싱턴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는 공산

5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2005), p. 227.

측을 압박하여 유엔측 대표단이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공산측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치면서, 새로운 협상 장소에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리지웨이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공격적인 작전을 통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공산군의 기도를 사전에 저지하고자 하였고, 캔자스-와이오밍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유엔군의 공세 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리지웨이는 공세 작전을 통해 확보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산측이 기존의 주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여 군사분계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6·25전쟁을 정치적 수단인 정전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유엔군 사령관이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연구한 본 논문은 다음의 몇 가지 주요한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협상에서 군사력의 역할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력이 우월한 진영은 군사력이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군사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둘째, 전쟁을 종결짓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 작전은 반드시 그 규모와 형태가 적절한 방식으로 조율되어야 한다. 군 지휘관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작전의 본질적인 목적은 협상이라는 것을 항상 고려하면서, 협상을 결렬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적절하게 압박할 수 있는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셋째, 군 사령관이 국가의 전쟁 수행 정책에 맞게 올바른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부와 군 지휘관이 소통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 지도부와 군 지휘관이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지휘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전략에 어긋나지

않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잦은 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대응해야 하는 안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1953년 형성된 정전체제의 틀 속에서 복잡해진 국제 상황을 고려하며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군의 지휘관들은, 반드시 작전적 수준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고 적합한 지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6·25전쟁 정전협상 시기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본 논문은 사료 부족으로 리지웨이와 밴플리트가 주고 받은 전문들과 워싱턴 내부의 논의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리지웨이의 군사적, 정치적 조치들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Department of State, RG 59, Entry A1 1251, Box 35: Korea Project Files, College Park, M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Eighth United States Army in Korea, RG 338, Entry A1 1, Box 64: Command Report, College Park, M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_____. RG 554, Entry NM-4 74, Box 12: General Files, 1953-1953, College Park, M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Matthew B. Ridgway, "My Battles in War and Peace, the Korean War," Saturday Evening Post (Feb 25, 1956)

Second Infantry Division, RG 407, Entry NM3 429, Box 2604: Second Infantry Division, College Park, MD: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Korea and China, vol. VIII, part 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RG 218, Entry UD 101, Korean Conflict: A Collection of Historical Manuscripts on the Korean Campaign,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2. 단행본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 김보영,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 (서울: 박영사, 201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a).
- _____, 『6·25전쟁사 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b).
- _____, 『6·25전쟁사 11권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로버트 F. 퍼트렐, 강승기 역, 『6·25전쟁 미 공군 항공전사』 (계룡: 공군본부, 2021).
- 박종상 외 4명, 『6·25전쟁 통계자료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 블라디미르 라주바예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 보고서』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선즈화, 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4)
- 양대현, 『역사의 증언』 (서울: 형설출판사, 1993).
- 예브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프,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범 5-0』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022).
- A.V. 토르쿠노프, 구종서 옮김,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기밀문서』 (서울: 에디터, 2003).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Washington, D.C.: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0).
-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

- Department of Army, *FM 1-02.1 Operational Term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19).
- Hermes, Walter G,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1966).
-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The Korean War Part II*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1979).
-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7).
- Rosemary Foot,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 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Robert Endicott Osgood, *Limited War: The Challenge to American Strate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 William Steu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3. 논문

- 김동길, 「휴전협상에서 북중·소 3국의 태도 변화 및 결과」,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3호 (2019).
- 김정익, 「작전적 수준과 작전술」 『한국군사학논총』 제4집 제1권 (2015).
- 손경호, 「제한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6·25전쟁 정책과 전략: 전쟁목표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 제6권 2호 (2021).
- 육군대학 전략학처 작전술과, 「작전술과 작전적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군사평론』 410호 (2011).
- 장재규, 「한국군의 용병술 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군사연구』 제154집 (2022).
- 정토용, 「한국전쟁과 미국의 제한전쟁: 군사적 측면」, 『군사』 22호 (1991).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CINCUNC(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in the early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 Focusing on Analysis of Operational-level

Kang, Ji-hyeon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CINCUNC in the early armistice negotiations of the Korean War, focusing on an operational-level analysis. It analyzes the military operations and negotiation processes carried out by the CINCUNC,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their role in advanc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To date, research on the Korean War armistice negotiations has primarily centered on the progression of the negotiations, the strategies employed by both sides, and the analysis of major issues. Specifically, analyses of the negotiation process have focused on the impact of internal conflicts among U.S. policymakers, the Joint Chiefs of Staff, key relevant countries, and the communist side. However, the proactive role of CINCUNC Ridgway has not been addressed.

This study analyzes Ridgway's role at the operational level, focusing on the Line Kansas-Wyoming and the summer offensive. Ridgway established the Line Kansas-Wyoming as the UN forces' main defensive line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and used the summer offensive to pressure communist forces, contributing to the UN negotiation delegation's ability to secure and maintain the initiative.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Ridgway played a decisive role in securing and maintaining the initiative for the UN negotiation delegation during the early armistice negotiations. 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negotiations, Ridgway pushed for offensive operations centered on the Line Kansas-Wyoming to secure military superiority. The UN forces' military superiority pressured the communist side to abandon their previous claims, creating conditions conducive to swiftly concludi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negotiations.

Keywords : Korea war, Armistice Negotiations, CINCUNC(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Line Kansas-Wyoming, Summer offensive, Operation Strangle